

세계ODA 사업동향



1. 필리핀 인력개발의 메카 '한-필 우정센터' 준공식 개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는 7일 오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이혁 주필리핀 대사, 볼테어 가즈민 필리핀 국방부 장관, 아일린 이삭 필리핀 기술교육청 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 인력개발센터(Korea-Philippin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필 수교 60주년(2009년) 및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60주년(2010년)을 기념하여, 우호증진 및 보은의 일환으로 건립된 동 센터는 지난 해 우리 보훈처 지원으로 건립된 한국전 참전기념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동 센터가 양국 우호증진뿐 아니라, 필리핀 인력개발을 전인할 수 있길 기대하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750만 불 규모의 '한-필 인력개발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코이카는 애니메이션·게임개발 등 유망직종에서 현지 최고수준(National Certificate IV)의 직업훈련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동 센터의 건축뿐 아니라 교과과정 개발, 교수법 교육, 운영 자문, 기자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왔다. 한-필 우정센터는 지난 5월 개원한 이래 현재 302명의 한국어과 수료생을 포함하여 5개 공과 총 440명의 고급인력을 배출,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산하 우수 직업훈련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필리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고급인력 양성 및 한-필 양국 교류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11-07

그림1 한-필 우정센터 준공식



2. 코이카-MP 주UN대표부서 MOU 체결

코이카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Millennium Promise(이하 MP)와 UN Millennium Villages Project(이하 MVP)의 계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이하 MOU)을 체결했다. MVP는 빈곤이 극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촌 지역의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의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통합적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 10개국(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말라위, 나이지리아, 세네갈, 말리 및 가나)에서 시행되고 있다. 코이카는 2009~2013년까지 총 5년 동안 우간다와 탄

자니아의 MVP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 2012년 실시한 실사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가시적 성과를 인정받아 MVP가 종료되는 2015년까지 총 2년간 추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MVP 추가지원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농촌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을 동 사업에 접목해 MVP를 보완·발전시키고,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극심한 빈곤 및 기아퇴치’ 달성의 마지막 목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태로 기여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 면담시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 퇴치에 큰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보급, 지원하겠다”고 논의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MVP사업명을 ‘Millennium Villages Project-Saemaul(이하 MVP-S)’로 변경하고 기존 MVP사업에 새마을 요소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실행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MDGs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새마을 전문가 파견과 새마을 연수 등 세부협력방안을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MP는 아프리카 지역 MDGs 달성을 위해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와 자선사업가 레이몬드 챔버(Raymond Chambers)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기구로, 콜롬비아대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10개국 80여개 마을에서 MVP를 수행하고 있다.

2013-09-25

3. KOICA-KOTRA, 개도국에서의 청년 취업 위해 손잡아

코이카와 코트라(KOTRA)가 개도국에서의 한국 청년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손잡았다.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과 코트라 오영호 사장은 4일(금) 오전 코트라 본사에서 개도국 무상개발협력과 한국 청년의 해외 취업·창업을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코이카 사업의 청년 참여와 취업·창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두 기관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번 MOU를 통해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민관협력모델 발굴에 힘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는 개도국 내 K-Move 센터와 상생협력플라자에서 활동 중인 해외 청년인턴·예비창업가 등을 통한 현지국 개발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 이를 코이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트라는 코이카 사업 참여 인력의 해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파견 전 비즈니스 교육 제공, 국내 복귀 전 현지 구직활동 지원, 지역전문가로 양성 후 해외 진출 중소기업과의 매칭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두 기관은 적정기술 해외창업 공모전 등을 통한 청년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개도국 진출을 위해 한국 청년들이 ODA사업의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동반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코이카와 국가의 대표적인 무역투자기관이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맺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협력의 배경은 개도국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도국이 수출·투자를 위한 시장을 넘어, 현지 경제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 한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인력 교류의 장으로서 바라보게 된 것. 이번 MOU는 ‘코이카 사업참여-취업-창업’ 연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관심과 진출이 저조한 개도국 지역에서 틈새 일자리를 창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Move(케이무브)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은 “코이카는 5년간(2014-2018년) 약 3만 여명에게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민관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ODA 사업 목표달성과 청년 해외진출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 오영호 사장은 “개도국과의 무역투자 패러다임이 인력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으로 변화하고 있어 지역 전문성을 가진 코이카 사업 참여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두 기관별 장점을 십분 활용해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협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3-10-04

4. 코이카, 새마을운동 통해 스리랑카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 모색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은 10월 24일 오후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스리랑카를 방문, 라자팍사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새마을 운동을 통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금번 코이카 이사장의 대통령 면담은 코이카의 지원 확대를 통한 총리의 방문성과 제고 및 양국 간 협력 공고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이사장은 “스리랑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교 기반의 문화와 내전 경험 등 정치·경제·종교적으로 한국과의 유사점이 많아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이 최근 한국의 사회 분열 및 갈등의 치료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스리랑카의 사회통합을 위한 밑거름으로서의 새마을운동 모델 전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스리랑카의 발전과 정에서 코이카가 기여해 온 바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근 스리랑카에서 폐기물 처리 및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환경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문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서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지역개발운동인 디비 네구마(Divi Neguma)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코이카의 글로벌 새마을 ODA 사업

을 통한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기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이사장은 금번 스리랑카 방문기간 동안 구나와르데나(Gunawardene) 교육부장관, 페리스(Peiris) 외교부장관 및 히즈볼라(Hizbullah) 경제개발부장관, 압둘 카더(Abdul Cardor) 환경재생에너지부 부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기술교사 양성기관 설립을 통한 한국의 기술교육 노하우 전수 및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모색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2013-10-25

5. 코이카, ‘제1회 KOICA 스칼라십 프로그램 컨퍼런스’ 개최

코이카는 21일 오후 코이카 본부에서 ‘제1회 KOICA Scholarship Program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코이카 SP 컨퍼런스는 14개 대학에서 수학과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코이카 장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존 프라스티오(John A. Prasetyo)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코이카 장학생, 대학 및 대사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코이카 석사학위 과정 성과 발표, 에세이 및 UCC 콘테스트 발표 및 시상, 리더십 특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그림2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과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 간의 양자면담 장면



사전에 석사학위과정 재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에세이 공모전에서는 크리스티앙 레나토 부에노 몬탈도(Christian Renato Bueno Montaldo, 페루, 연세대학교), 파멜라 쉬엘라 크위키리자(Pamela Shiellah Kwikiriza, 우간다, 이화여자대학교), 쉬바 라지 레그미(Shiva Raj Regmi, 네팔, 한동대학교)의 에세이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우수 에세이 발표를 통해 연수생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자국에 분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함께 진행된 코이카 SP 로고송 UCC 콘테스트에서는 지아울 호크(Ziaul Hoque, 방글라데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8명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개발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리더십 특강에서는 김의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과거 국제사회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해외에서 수학했던 자신의 경험과 간호 분야 전문가로서의 삶을 공유하여 참가 연수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정수 코이카 글로벌협력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의 개발모델 전수시 협력국의 상황, 배경, 문화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접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코이카와 파트너 국가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이카는 1997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우수 대학

참고. 제 1회 KOICA SP 컨퍼런스 우수 에세이 수상내역

- Christian Renato Bueno Montlado(페루 · 연세대학교), “Evolution of ICTs in Peru and key factors for its development under Korean model”
- Pamela Shiellah Kwikiriza(우간다 · 이화여자대학교), “Lesson to Uganda from Korea’s tertiary education development experience”
- Shiva Raj Regmi(네팔 · 한동대학교), “Rural transformation of Nepal, from poverty towards prosperity : Lessons from Korea”

과 협력하여 국제개발, 공공정책, 여성과 개발, 농촌개발, 전자정부 등 개도국 발전 맞춤형 석사학위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집중지원하고 있다. 석사학위 과정을 실시한 이래로 75개국 1,500여명의 연수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302명의 개도국 공무원들이 서울대, KDI, 한경대 등 14개 대학, 16개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2013-11-22

그림3 코이카 스칼라십 프로그램 컨퍼런스 현장

